

# 골든글로브, 그들만의 시상식 전략

이정제도 불참... 부패 스캔들·성·인종 차별 논란·관객 없고 TV 중계도 없는 초유의 사태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골든글로브(Golden Globes) 시상식이 과황을 맞고 있다. 지난해 터진 부패 스캔들에 더해 성(性)·인종 차별 등 문제로 미국 사회 안팎의 비난에 휩싸이면서 방송 중계도, 관객도 없이 열리게 된 것이다.

4일(현지 시각) AP 등 외신에 따르면,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FFPA)는 오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스 호텔에서 79회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다. 다만 관객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방송 중계도 하지 않는다.

FFPA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문제로 관객을 들여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현지 언론은 코로나 사태보다는 최근 FFPA를 향한 할리우드의 불신 탓에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골든글로브 측은 NBC 등 현지 언론이 골든글로브 중계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 후보 지명 행사를 유튜브로만 생중계했다. LA타임즈는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예년과 같은 것은 수상자를 선정하고 트로피를 주는 것 뿐"이라며 "이제는 레드카펫도 없고, 관객과 취재진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워너미디어·넷플릭스·아마존스튜디오 등 미국 내 대형 제작사 등이 대거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따라서 올해 시상식에서 TV 드라마 부문 작품상·남우주연상·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측은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시상식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후보인 이정재와 오영수 역시 시상식에 가지 않기로 했다. 이정재 측은 "후보에 오른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현지 분위기를 고려해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대한 여론이 이처럼 악화된 건 지난해 2월 LA타임즈의 보도로 FFPA의 부패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터였다. FFPA가

2019~2020년 회원들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약 2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2019년엔 제작자 파라마운트 협찬으로 회원 30여명이 프랑스 파리로 초호화 여행을 떠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FFPA 회원은 87명으로 매우 적어 로비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왔다.

이와 함께 인종 차별 성 차별 논란도 터져나왔다. FFPA 회원 중 흑인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할리우드 최고 스타 중 한 명인 스킵트 조헨슨이 FFPA 회원에게 성 차별적 질문을 받고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영화계 안팎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 지난해 행사에선 미국 영화사가 제작한 미국 영화인 '비너리'를 영어 대사가 적다는 이유로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려 크게 비판받기도 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자 매년 골든글로브를 중계해온 NBC가 중계 거부를 선언했고, 대형 제작사들이 줄줄이 골든글로브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 할리우드 스타들이 소속된 홍보사 100여개 역시 골든글로브가 완곡탈대 할 때까지 참여하지 않겠다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전 세계적인 슈퍼 스타인 톱 크루즈는 그간 골든글로브에서 받은 트로피 3개를 모두 반납하기도 했다.

FFPA는 지난해 시상식 이후 쇠신 작업을 진행해 이사회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흑인 기자 6명을 포함해 21명의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하고 행동 강령을 업데이트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할리우드는 골든글로브를 향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다.

/뉴시스

# 전북대 오일석 교수 저서, 세종도서 선정

'파이썬으로 만드는 인공지능'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

전북대학교 오일석 교수의 저서 '파이썬으로 만드는 인공지능'이 2021년도 세종도서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오 교수의 우수도서 선정은 2009년 '패턴 인식', 2015년 '컴퓨터 비전', 2018년 '기계학습'에 이어 네 번째다.

이 책은 딥러닝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이론을 79개의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할 수 있게 구성했다. 컨볼루션 신경망, 순환 신경망, 강화 학습 등의 인공지능 핵심 이론을 다양한 예시와 수식, 그래프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로봇 기자, 집 지킴이, 비트코인 가격 예측, 동요 편곡, 패션 생성 비즈니스, 오목 프로그램 실습으로 인공지능 구현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오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컴퓨터공학부가 개설한 인공지능 교과목에서 이 책을 교재로 사용했고, 강의를 녹화해 유튜브에 올렸다. 유튜브에서 '오일석 인공지능'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매년 교양 및 학술도서로 가치



가 높은 도서를 '세종도서'로 선정한다. 선정 도서는 출판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된다.

오일석 교수는 1992년부터 전북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KAIST 전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보과학회 SA(소프트웨어와 응용) 논문지와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의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기계 학습과 컴퓨터 비전, 패턴인식이다. /장은성 기자

# '내일을 위한 오늘의 초록빛 일상' 공유 이벤트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 20일까지 환경 보호 실천 일상 모습 사진으로 담아 공유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팬더믹 지속과 탄소배출 이슈화 등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함께 실천하고자 재단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내일을 위한 오늘의 초록빛 일상 공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일까지 진행되며,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 중인 일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공유하는 방식이다.

재단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해 재단의 친환경 정책 내용을 담은 '제로웨이스트 육식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번 SNS 이벤트를 통해 재단의 문화관광 ESG 정책 메시지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며, "2022년에도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2021년 10월 '관광부문 ESG 경영 실천 결의식'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ESG 토크콘서트' 등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포용적 성장 및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정책연구팀(063-231-743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특별한 의미 담은 100가지 색 컬러의 일

매일 색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날의 색' 100가지를 담은 책 '컬러의 일' (월북)이 출간됐다.

미켈란젤로가 사랑했던 레드 오키부터 자외선 차단 기능을 지녀 요즘 건축에서 주목받는 멜라닌까지, 색색의 컬러들이 지닌 과거와 현재 이야기와 나아가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적인 일지 컬러 아이디어를 일목요연하게 들려준다.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색체계, 색상환, 색채 심리학 등 색에 대한 이론을 알기 쉬운 문체로 요약해 색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각 색깔별로 그 색이 어떻게 탄생했고 과거 쓰임은 어땠으며 현재는 어떤 용도와 의미로 쓰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주목할 만한지 추천 아이디어를 짧고 명쾌한 글로 정리해놓았다.

아울러 해당 색이 패션, 건축, 회화, 조각, 브랜드 로고 등에서 실제로 사용된 사례들이 시원하고 선명한 이미지들로 담겼다.

/뉴시스

# '한국 페미니즘 SF 기수' 전해진 첫 SF 소설집 출간

한국 페미니즘 SF의 기수, 전해진 작가의 첫 SF 소설집 '아틀란티스 소녀' (야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2007년 전 작가가 '월하의 동사무소'로 데뷔한 이후 첫 소설집 '홍등의 골목' 수록작을 포함해 14년간 집필한 50여편의 중단편 소설을 모두 검토, 선별해 엮은 첫 'SF' 소설집이다.

'SF'를 강조하는 이유는, 작가가 근래 발표한 각종 픽션과 논픽션의 끝자락 시작에, 여기 모은 소설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간 무례하고 폭력적인 세상에서 현실을 철저히 파헤치고 과거를 돌아보는, 그리고 현실에 머물지 않고 과감히 이를 전복하는 이야기들을 써 왔다.

"전해진이 초점을 맞추는 존재들은 자신을 '미운 오리 새끼'로 여긴다. 이들은 다른 이를 질투하고 동경하다 주눅이 든다. 그러나 너무 하기만 한 세상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들은 바로 이 '무너리'들이다. 그러니 부족한 게 아니라 넘쳐서 휘청였던 것뿐이다. 뭔가 끊임없이 궁극에서 세상의 미추를 빨리 알아챘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이야기들의 높은 해상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얼떨떨할



정도로 성실하고 총명한 열두 편의 단편을 읽고 나면, 손발이 근력이 생기는 것 같다. 있는 힘을 다해 싸우려는 마음, 의로운 마음. '분전'과 '의협'이란 단어가 꼭 어울릴 소설집이다." (소설가 박문영)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